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식품 위생 연구원 ○○○입니다. 여러분, 식중독은 주로 어느 계절에 발생할까요? (대답을 듣고) 대부분 여름이라고 알고 계시네요. (자료 제시) 그러나 지금 보시는 계절별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식중독은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품 관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식품 위생 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중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대표적으로, 달걀에 묻어 있던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열에 약해 충분히 가열한다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걀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면 다른 식재료에 균이 묻어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달걀을 구매할 때는 금이 가 있거나 깨진 것을 피하고, 다른 식재료와 구분하여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채소류 역시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채소류는 물로만 씻은 뒤 상온에 보관했다가 가열이나 조리 없이 날것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세척 과정에서 미세한 흙집이 생기면 식중독균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채소류는 식초액 등 소독액에 담갔다가 깨끗한 물에 3회 이상 세척해야 하고, 바로 먹지 않는 경우 꼭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견과류는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네, 구매한 상태 그대로 상온에 보관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네요. 그러나 견과류는 다량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상온에 보관하면 산패될 위험이 높습니다. 산패란 지방이 변질되는 현상으로, (자료 제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지방질의 사슬 구조가 끊어지면서 유해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곰팡이 독소가 생기면 곰팡이 독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견과류가 산패될 때 발생하는 아플라톡신에 의한 식중독이 대표적입니다. 이 독소는 열에 강해 식품을 익히거나 튀겨도 사라지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과류는 껍데기가 있는 생견과류를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밀봉한 상태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 위생 관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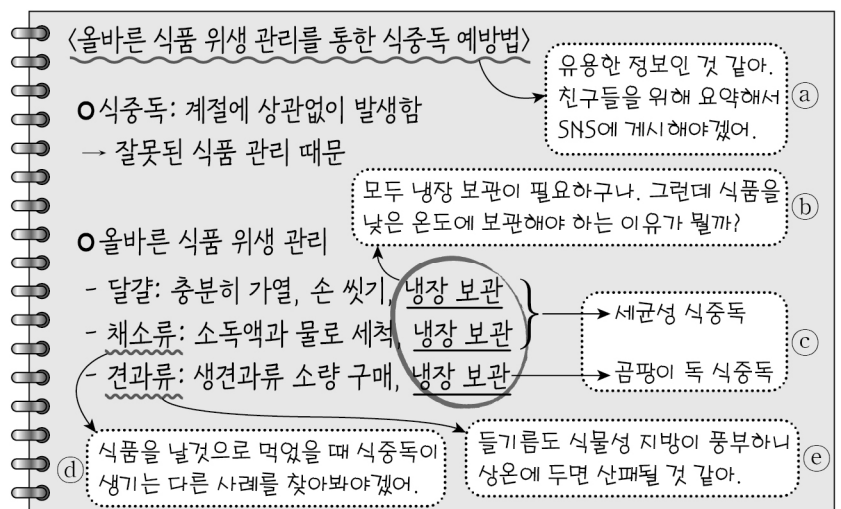
- 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강연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다.
- ⑤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교사가 강연자에게 보낸 전자 우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강연자의 계획 중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영양 교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식품 위생 관리 방법에 대한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사전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식중독이 여름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식중독 발생 원인과 식품별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① 청중이 강연에서 알게 된 내용을 실천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 ② 식중독에 대한 청중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통계 자료로 제시한다.
- ③ 청중이 식중독의 발생 이유를 궁금해하므로 식중독의 종류에 따라 식중독 발생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 ④ 청중이 식품별 식중독 예방법을 알고자 하므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품들을 소개하며 식품의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 ⑤ 어려운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자료를 활용해야 하므로 지방의 산패로 인한 유해 성분의 생성 과정을 그림 자료로 제시한다.

3.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강연 내용을 주변에 알릴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의 가치를 판단하며 들었겠군.
- ② ㉡: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들었겠군.
- ③ ㉢: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품을 식중독 종류에 따라 묶은 것으로 보아,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겠군.
- ④ ㉣: 강연 이후의 조사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들었겠군.
- ⑤ ㉤: 산패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식품을 떠올린 것으로 보아,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들었겠군.

[4~7] (가)는 학생들이 ‘직업 소개’를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실을 글을 작성하기 위해 실시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미술 심리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담사: 미술 심리 상담사는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가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안정을 찾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학생 2: 그렇다면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 미술 심리 상담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상담사: 일반적인 심리 상담이 내담자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술 심리 상담은 미술 활동을 통해 심리적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술 심리 상담은 어린아이를 비롯한 언어적 표현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내담자에게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1: 미술 심리 상담이 미술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림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맞는 건가요?

상담사: ㉠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 상담사와 같이 이야기하며 내면의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학생 2: 저도 한번 상담을 받아 보고 싶네요. ㉡ 제가 미술 심리 상담에 대해 조사해 보니 다양한 상담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미술 심리 상담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사: 대표적인 상담 방법으로는 ‘집-나무-사람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내담자가 종이에 집과 나무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심리 상태나 고민 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생 2: ㉢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 과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군요. 혹시 집에서 그려 온 그림으로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상담사: 미술 심리 상담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그림을 그리는 순서나 그리다 지운 내용, 소요 시간 등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관찰하면 더욱 좋습니다.

학생 1: 아,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군요. 그러면 미술 심리 상담은 한 번만 받아도 되나요?

상담사: ㉤ 한 번의 미술 심리 상담만으로도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꾸준한 상담으로 상담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내담자가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사는 내담자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담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 2: 그렇군요. 끝으로 미술 심리 상담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상담사: 미술 심리 상담사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또, 다양한 내담자를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학생 1: 말씀을 듣고 보니 왜 미술 심리 상담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지 알겠네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미술 심리 상담사는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이다. 미술 심리 상담은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담과 달리 미술 활동이 중심이 되므로 어린아이를 비롯한 언어적 표현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도 유용한 상담 방법이다.

미술 심리 상담 방법에는 집과 나무, 사람을 그리는 ‘집-나무-사람 검사’, 강과 산, 길, 꽃 등을 그리는 ‘풍경 구성법’, 원의 중심에 부모와 자신을 그리는 ‘동그라미 가족화’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심리 상태나 고민 등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그린 그림뿐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미술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미술 심리 상담사는 상담과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전문성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미술 심리 상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술에 애정이 있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를 가진 학생이라면 미술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을 추천한다.

4.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에 답변하며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 ② ㉡: 상대방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 ③ ㉢: 상대방 답변의 일부를 재진술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언급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 ⑤ ㉤: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며 자신이 파악한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5. 다음은 (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 1’과 ‘학생 2’가 작성한 인터뷰 계획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미술 심리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며 인터뷰를 시작해야겠어. ①
- 미술 심리 상담이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고 해야겠어. ②
- 미술 심리 상담은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알려 달라고 해야겠어. ③
- 미술 심리 상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담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④
- 미술 심리 상담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어. ⑤

6. (가)를 참고할 때, (나)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에는 미술 심리 상담사의 개념을 비교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② 1문단에는 미술 심리 상담이 어린아이에게 유용한 이유를 비유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③ 2문단에는 미술 심리 상담사들이 사용하는 상담 방법을 나열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④ 2문단에는 미술 심리 상담에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⑤ 3문단에는 미술 심리 상담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7. 다음은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수정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현대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늘어나고 정서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술 심리 상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술에 애정이 있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를 가진 학생이라면 미술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을 추천한다.

- ① 미술 심리 상담사의 직업적 의미는 이미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군.
- ② 미술 심리 상담사의 사회적 책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미술 심리 상담사가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④ 미술 심리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⑤ 미술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접속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해야겠군.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학교 신문에 청소년들의 구독 경제 이용에 대한 글을 써서 실으려 함.

[학생의 초고]

구독 경제란 구독료를 지불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 방식이다. 구독 경제는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을 갖춰 구독료 지불이 편리하면서도 비용의 측면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독 경제의 과도한 이용은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독 경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여러 개의 구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게 되면 구독료가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소년들은 한 개의 구독 서비스만을 이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구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양한 웹툰을 보기 위해서는 웹툰 멤버십을,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구독하는 식이다. 각각의 구독 서비스는 소액으로 느껴져 쉽게 구독을 결정하지만,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의 개수가 증가하면 지출해야 할 구독료의 총액이 커지는 것이다.

둘째, 구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장시간 이용하게 되면 뇌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는 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에 편중되어 있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필수적이기에, 구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장시간 이용하는 것은 곧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뇌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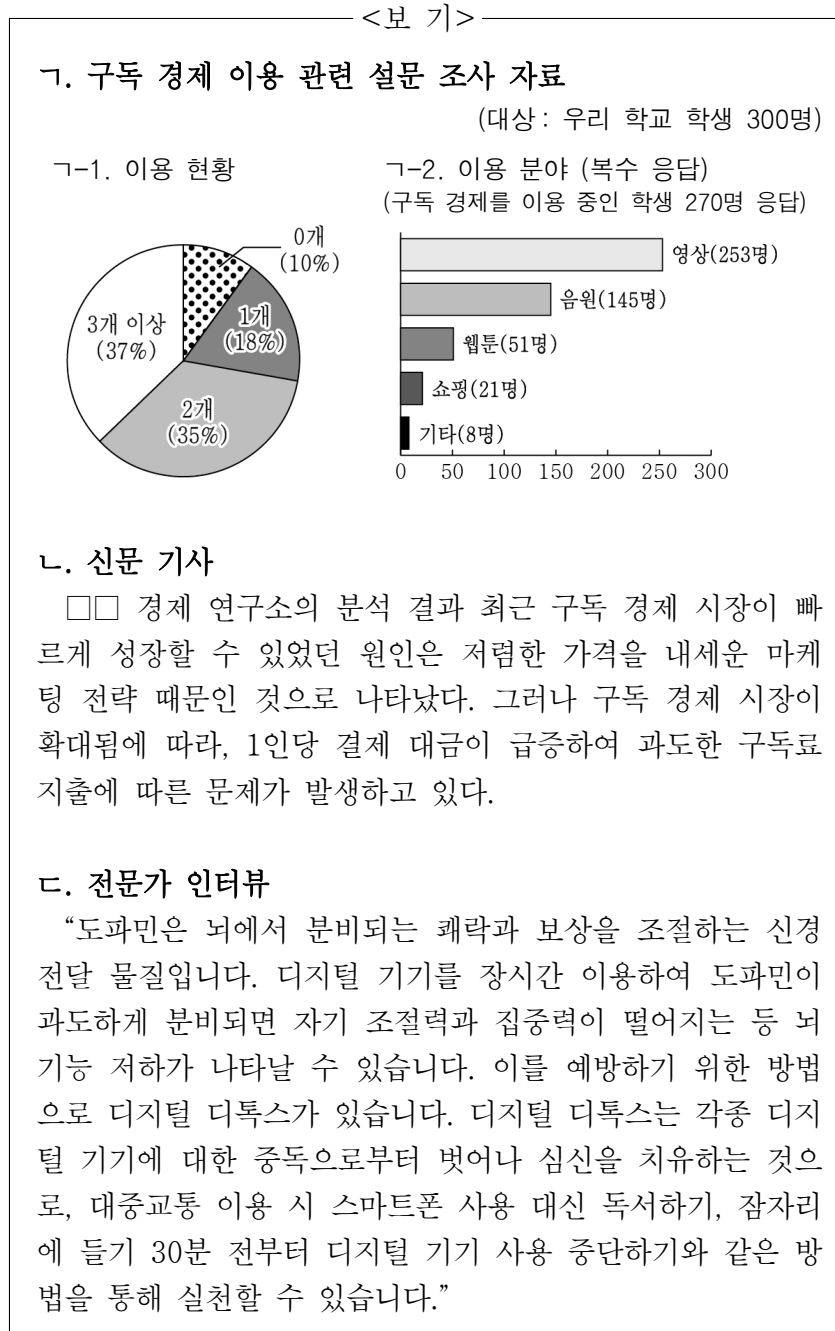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독 경제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구독 경제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까지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장시간 이용하는 것을 삼가기 위해 정해진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A]

8.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구상한 글쓰기 내용으로,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구독 경제를 이용할 때의 장점
- ② 구독 경제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문제점
- ③ 구독 경제의 이용 시간과 뇌 건강의 관련성
- ④ 구독 경제를 이용할 때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
- ⑤ 구독 경제의 이용이 특정 플랫폼에 편중된 이유

9.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ㄱ-2를 활용하여, 구독 경제의 이용 분야가 디지털 콘텐츠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구독 서비스 콘텐츠의 장시간 이용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의 근거로 3문단에 보강해야겠어.
- ㄴ을 활용하여, 1인당 결제 대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개의 구독 경제를 이용하는 것이 구독료의 과도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의 근거로 2문단에 보강해야겠어.
- ㄷ을 활용하여, 디지털 디톡스의 실천 방법을,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임으로써 청소년들의 뇌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4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ㄱ-1과 ㄴ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여러 개의 구독 경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들이 구독 경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으로 1문단에 보강해야겠어.
- ㄱ-2와 ㄷ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가 과도한 도파민 분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청소년이 다양한 형태의 구독 경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3문단에 추가해야겠어.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교사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구독 경제를 과도하게 이용할 때의 문제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4문단에서 제시한 구독 경제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모두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과도한 구독 경제 이용은 뇌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간을 줄여 뇌가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야 한다.
- 구독 경제를 지나치게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른 태도로 구독 경제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다.
- 무분별한 구독 경제 이용은 독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구독 경제만을 선택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구독 경제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구독 경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 구독 경제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지나친 이용은 과소비를 유발한다. 구독 경제 이용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구독 경제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태도이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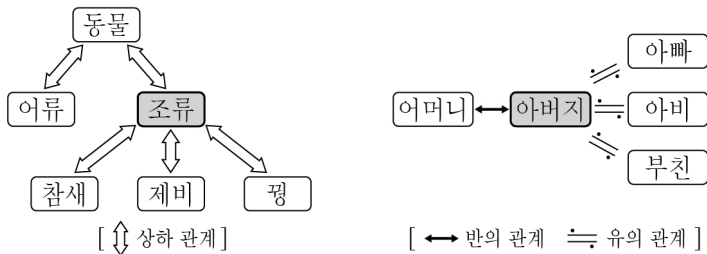
국어의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은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의미의 계층상 단어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하며 이에 따라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한다. 상의어와 하의어는 의미 성분의 수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소년’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남자아이를,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남자’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의어일수록 의미 성분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그 단어가 지시하는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진다. 또한, ‘남자’는 ‘인간’에 대해서는 하의어이지만 ‘소년’이나 ‘총각’에 대해서는 상의어인 것처럼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는 단어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둘 이상의 단어들끼리 맺고 있는 의미 관계를 유의 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 한다. ‘남자’와 ‘남성’, ‘사내’와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비슷하여 대개 문장에서 서로의 자리에 바뀌어 들어갈 수 있는 유의어들이다. 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간의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하며, 이 관계에 속하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한다. 반의어는 모든 의미 성분이 대립되는 단어가 아니라 나머지 의미 성분을 공유하고 단 하나의 의미 성분에 대해서만 차이를 가지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는 다른 의미 성분은 모두 같지만 ‘성별’이라는 의미 성분에서만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반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소녀’는 ‘성별’ 외에 ‘연령’이라는 의미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아니다. ㉠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반의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는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는 다의어일 때,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관계를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어휘 지도를 통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조류’와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래의 어휘 지도를 통해 그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1. 윗글의 어휘 지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은 ‘어류’에 비해 단어가 지시하는 지시 대상의 범위가 넓다.
- ② ‘조류’는 ‘참새’, ‘제비’, ‘펭’보다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의 수가 많다.
- ③ ‘아버지’와 ‘아비’는 의미가 유사하지만 문장에 따라 바뀌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④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별’이라는 의미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 성분을 공유하고 있다.
- ⑤ ‘조류’는 ‘동물’에 대해서는 하의어이지만 ‘제비’에 대해서는 상의어이므로 상하 관계의 상대성이 드러난다.

12. 윗글의 ㉠을 참조하여 <보기>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단어	예문	반의어
걸다	벽에 그림을 <u>걸고</u> 있었다.	[A]
	지금 친구에게 전화를 <u>걸어야</u> 한다.	[B]
	[B]	[C]
	자동차의 시동을 <u>걸었다</u> .	[C]

- | | [A] | [B] | [C] |
|---|-----|--------------------------|-----|
| ① | 떼다 | 대문에 빗장을 <u>걸었다</u> . | 끄다 |
| ② | 떼다 | 술을 가장자리에 <u>걸었다</u> . | 끄다 |
| ③ | 떼다 | 문에 자물쇠를 <u>걸지</u> 않았다. | 내리다 |
| ④ | 빼다 | 명예를 <u>걸고</u> 임해야 할 것이다. | 내리다 |
| ⑤ | 빼다 | 큰 상금이 <u>걸려</u> 있는 대화이다. | 풀다 |

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되었다. 먼저,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 ‘을’이나 ‘을’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를’이나 ‘를’이 실현되었는데,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앞말의 받침을 뒤의 ‘을’이나 ‘을’에 이어 적기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에는 ‘을’이나 ‘를’이, 음성 모음일 때에는 ‘을’이나 ‘를’이 실현되었다.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는 예는 아래와 같다.

- (㉠) 손소 자부샤
[손을 손수 잡으시어]
- 世尊의 내 (㉡) 펴아 슬복쇼셔
[세존께 내 뜻을 펴 아뢰십시오.]
- 王이 (㉢) 請히스복쇼셔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 | | ㉠ | ㉡ | ㉢ |
|---|----|----|-----|
| ① | 소늘 | 쁘들 | 부터를 |
| ② | 소늘 | 쁘들 | 부터를 |
| ③ | 소늘 | 쁘들 | 부터를 |
| ④ | 소늘 | 쁘들 | 부터를 |
| ⑤ | 소늘 | 쁘들 | 부터를 |

1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닭장[닥짱] ㉡ 끓는[끓른] ㉢ 흠이불[흔니불]

- ① ㉠, ㉡에는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있군.
- ② ㉡, ㉢에서는 앞의 자음이 뒤의 자음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③ ㉠에서 탈락된 음운과 ㉢에서 첨가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 ④ ㉢에서는 ㉠, ㉡과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 개수가 하나 늘었군.
- ⑤ ㉡, ㉢에서는 ㉠과 달리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그는 영수가 집에 간다고 했다.
 ㉡ 이것은 어제 그녀가 산 책이다.
 ㉢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 영철이는 마음씨가 매우 착하다.
 ㉤ 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 ① ㉠은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② ㉡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이것은’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그녀가’이다.
 ③ ㉢은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④ ㉣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영철이는’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마음씨가’이다.
 ⑤ ㉤은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나는’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아이들이’이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우체국에 들른 ‘그’는 주차하는 도중 노인의 승용차 범퍼를 살짝 긁고, 노인과 시비 끝에 경찰관의 중재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한다.

“글쎄 그건 누구를 속이거나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고 자기 권리를 찾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셨으면 보험회사한테 얼마나 갖다 바친 거예요. 그동안 사소한 사고를 내고도 몇백 몇천씩 뜯어먹은 운전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는 사장님 밥상을 찾아 먹을 때도 됐죠.”
 본업인 ‘차량 정비비’보다는 ‘텐트’ ‘보험 처리’라는 글자를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유리문에 붙여놓은 정비업체 사장은 몸집이 자그마했다. ㉠ 안경 너머에서 눈이 반짝거렸고 작은 입술은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였다. 그는 매끈하게 치장해놓은 가게 안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크고 둔중해 보이는 자신의 차에 몸을 기댔다.

“글쎄, 보험회사 직원도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장은 말을 하면서도 눈과 귀, 손과 발을 쉬는 법이 없었다. 순식간에 그의 차에 새겨진 세월과 부주의의 흔적이 드러났다.

“여기 크게 박은 게 두 군데고 작은 건 네 군데네요. 범퍼는 깨끗하게 칠해드리고…… 이거 다 합치면 한 칠팔십 되겠는데요. 제가 보험 할증 안 붙게 오십 안팎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사장님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누가 박고 갔다고 하세요. 차 어딴냐고 하면 우리 가게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담당 직원 정해지면 전화하라고 제 번호 가르쳐주세요. 그다음에 사장님은 썩 빠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프로니까요. 적하면 서로 알아보는 거죠.”

차를 맡긴 그는 최대한 천천히 걸어서 십여 분 만에 자신의

거처인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접촉 사고** 이후 보험회사 직원의 예견대로 노인은 **정비 공장을 찾아가서 범퍼 전체를** 교환했고, 아슬아슬하게 보험료 할증이 없는 상태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그는 노인과 시비를 벌이는 와중에 **화풀이로 차를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한** 뒤 생긴 흔적을 포함해 차에 생긴 크고 작은 상처를 손볼까 싶어서 차량 정비와 외장 수리를 전문으로 한다는 오피스텔 앞 정비업체를 찾았던 것이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자 전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파러웨이자동차보험 상담원 김민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기계음을 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알레르기 증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침을 했다.

“제 차를요. 주차장에 놔뒀는데요. 어떤 놈이 살짝 박고 도망을 간 거 같아서요.”

“예, 고객님,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객님의 신원부터 확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공일팔 이삼하나 구일칠삼 맞으시나요? 고객님의 성함은 박 자, 정 자, 국 자, 맞으시죠?”

㉡ 신원을 확인하고 난 뒤 상담원은 차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세워두었느냐고 물었다. 그가 오피스텔 주차장이라고 대답하자 주차장 몇 층 가운데 몇 층인지, 출입구에서 어느 정도 되는 위치인가도 물었다. 그는 허둥대는 와중에도 혹시 시시티브이가 작동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주차장 바깥 건물 벽에 붙여서 세워두었다고 둘러댔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거기다 세워두셨습니까?”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의 목소리에서 처음의 기계 같던 느낌은 많이 사라졌다. 이십대 중반쯤이나 되었을까 싶게 옛되고 맑은 목소리에 그는 문득 수치심을 느꼈다.

(중략)

그의 차 뒷부분은 거대한 강철 손으로 움켜잡아 **찌그러뜨린** 듯했다. 원래 그가 세웠던 자리에서 받힌 충격으로 오십 센티미터쯤 움직여 기둥을 들이받은 터라 **오른쪽 뒷문이 완전히 으스러진** 채였다. 그는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올** 때도 있구나 싶어 가슴이 떨렸다. 그는 기쁨을 억제하며 일부러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이거 새로 텐트 하고 코팅까지 한 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돈 처마른 게 흔적도 없네.”

두꺼운 빨테 안경을 쓰고 양복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는 일단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좋은 차를 잘 타시고 계신데 제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지금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제 차는 벌써 정비 공장에서 차가 와가지고 견인을 해갔는데 같은 보험회사에서 고쳐도 좋을지, 선생님 의향이 어떠신지 몰라서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깨워서 또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답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별말씀 다 하십니다. 다 같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찌다가?”

㉢ 목욕탕 천장의 환기 시설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주러 왔던, 팬을 사오면 갈아주겠다고 하던 젊은 기사가 나섰다.

“가해자 차주가 여기 사시는 분 맞고요. 삼이공요 넘버 확인했어요. 전화번호도 따냈어요. 우리도 차다가 소리가 팽, 하고 나서 나와 봤는데요. 정말 폭탄 터지는 거 같았어요. 사장님 차는 앞에 있던 차가 커버를 해줘서 상황이 좀 나은

거예요. 그 차 완전 개박살났어요. 차주 분이 **폐차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출고 십 년 된 코란돈데요. 그 차주 분이 좋아하시면서.....”

그는 말을 끊었다.

“아, 나도 칠 년 된 찬데. 그런데 나 차 바꿀라다가 계약금으로 목돈 들어가지, 등록비에 세금 무섭고 해서 좀 더 타자고 바로 얼마 전에 이백만 원 주고 짝 도색하고 내부 고쳐서 타던 거예요. **그 돈 들인 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 안쪽에 서 있던 여자들 중 하나가 기침을 했다. 그는 말을 멈추었다. 역시 공기가 안 좋아. 예민한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좋지 않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정비 공장에다 견인차를 또 오라고 전화할까요?”

투 버튼 회색 정장에 물방울무늬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그에게 물었다. 그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볼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그가 아는 한 주변에 같은 일을 겪은, 아니 그런 행운을 맞이해본 사람은 없었다. ㉡ 시간이야 어떻든 간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 세계에는 행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행운을 많이 가져가면 남은 것을 나눠 가져야 하는 사람들의 몫이 줄어든다.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재수가 없다’고 표현한다.

- 성석제, 「론도」 -

16.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비업체 사장은 사고를 내고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비난하였다.
- ② ‘그’는 보험회사 직원이 말한 방법을 자신이 실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다.
- ③ 정비업체 사장은 수리해야 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그’의 부주의함을 지적하였다.
- ④ 중년 남자는 ‘그’에게 자신과 같은 보험회사에서 차를 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 ⑤ 젊은 기사는 중년 남자가 사고를 내는 순간에 목격한 내용을 ‘그’에게 전달하였다.

17.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동질감이 드러난다.
- ② 문답의 과정을 거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③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인물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상반된 견해를 가진 인물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
- ⑤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인물의 솔직함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됨이 드러난다.

1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눈이 반짝거렸고’와 ‘작은 입술은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였다’를 보면, 서술자가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서술자가 인물 간의 대화를 인용 부호 없이 서술하며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수리를 해주러 왔던’과 ‘갈아주겠다고 하던’을 보면, 서술자가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누가 한 말인지 서술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재수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를 보면, 특정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서술자가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론도’는 주제 선율이 반복되는 사이에 주제 선율과 차이를 지닌 선율이 삽입되어 주제 선율을 부각하는 음악 형식이다. ‘론도’라는 음악 형식을 차용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교통사고를 두 번 겪는데, 각각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주인공의 입장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주인공 이외의 인물들도 자신이 겪은 교통사고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른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이해타산적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그’가 노인의 승용차 범퍼를 긁은 것과, 중년 남자가 ‘그’의 차를 ‘찌그러뜨린’ 것은 모두 교통사고에 해당하는데, 이는 ‘론도’라는 음악 형식을 차용하여 주인공이 겪는 사건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② 노인이 ‘정비 공장을 찾아가서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것과 코란도 차주가 ‘폐차해야 되겠다’고 말하며 좋아하는 모습에서 이해타산적 세태를 확인할 수 있겠다.
- ③ 노인과 시비를 벌이며 ‘화풀이로 차를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한’ ‘그’가 중년 남자와의 사고를 ‘행운이 찾아’온 것이라 여기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 따른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인물의 모습에 해당하겠다.
- ④ ‘그 돈 들인 게 일주일도 안’ 되었다는 ‘그’와 ‘공손히 답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의 모습에 해당하겠다.
- ⑤ ‘접촉 사고’의 상황과 ‘오른쪽 뒷문이 완전히 으스러진’ 사고의 상황을 통해 사건에 따라 주인공의 입장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한다.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 결정되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하였다.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색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그런데 화학식이 H_2O 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은 화학식이 XYZ인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어,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이 노랑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미 내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구에 따라 결정된다.
- ② 의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
- ③ 의미 외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
- ④ 의미 내재주의자와 퍼트넘 모두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⑤ 퍼트넘은 의미 내재주의자와 달리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지시체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21. 밑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지구의 물이 같은 물질이더라도 두 지구의 사람들이 이를 서로 다른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인식이 같더라도 두 지구의 물은 서로 다른 지시체이기 때문이다.
- ③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이 물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④ 두 지구의 물이 다른 물질이더라도 기술구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기 때문이다.
- ⑤ 두 지구의 사람들이 가진 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2. [A]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알루미늄과 속성 및 용도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몰리브데넘의 원소 기호는 Mo로 Al인 알루미늄과는 다른 물질이다. 일반인들은 몰리브데넘 냄비와 알루미늄 냄비를 구별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테스트를 통해 이를 간단히 구별한다.

- ①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속성이 비슷하더라도 실제적 본성에는 차이가 있겠군.
- ② 두 금속의 원소를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통해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본질적 구조가 드러났겠군.
- ③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차이를 인지하며 단어를 사용하겠군.
- ④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겠군.
- ⑤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일반인들이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언어적 노동 분업이 이루어진 것이겠군.

23. <보기>의 관점에서 퍼트넘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레몬’이라는 대상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깨비’와 같이 외부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의 의미를 지닌다.

- ①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때 외부 세계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② 대상의 본질이 달라지면 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 역시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다.
- ③ 단어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 외부 세계에 실재하는 대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도외시켰다.
- ④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한 의미보다 대상 그 자체를 아는 것이 단어의 의미 결정에 중요하다.
- ⑤ 외부 세계가 의미 결정에 필수적이라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의 의미는 설명할 수가 없다.

24.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 ②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 ③ 그가 지닌 목걸이는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다.
- ④ 일을 성사시킬 책임을 지니고 해외로 출장을 갔다.
- ⑤ 첫사랑의 추억을 평생 동안 가슴속에 지니고 살았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영웅적 면모를 지녔으나 먹고 자기만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던 이생은 장인이 죽자 장모에 의해 쫓겨나고, 이생의 부인 양 소저는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생을 기다린다. 한편 집을 나온 이생은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삼백 냥의 돈을 다 내어준 후 어떤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하였으니 깊이 감격하노라.”
이생이 이렇듯 노인의 신기함을 보고 평범한 인물이 아니리라 생각하며 의아해 하지않았다.
“존옹의 물으심이 무슨 일이니이꼬? 저는 적선한 일이 없소이다.”
노인 말하기를,
“대인은 사람 속이기를 아니하나니라.”
이에 또 말하기를,
“그대 저리 먹는 양에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려 하느뇨?”
이생이 답하기를,
“이처럼 얻어먹으면 아니 살아가리이까?”
노인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 소년의 말이 사리에 어둡도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알거니와 그대는 나를 모르리라. 다만 그대에게 붙일 말이 있나니, 깊고 자세히 알려 하지 말라. 마땅히 평안히 지내며 학문을

넓힐 곳이 있거늘 도로에서 방황함이 무익하지 않겠느냐?”
이생이 대답하였다.
“소자는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오니, 대인은 밝게 가르치소서.”
노인이 말하였다.
“낙양 땅 청운사가 매우 부유하고 그 절의 승려가 의기가 많으니 죽히 안거하여 공부를 착실하게 할 수 있을지라. 내가 적은 돈을 보태리라.”
이생이 고마움을 표현하되 노인이 말하였다.
“삼백 냥 은자를 통째로 주고도 사례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이제 도리어 네다섯 냥을 받고 사례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하였다.
“가는 길이 피곤할 것이오. 본디 잠이 많으니 그만하여 자고 내일 나를 찾지 말라.”
이생이 고하였다.
㉡ “존공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으심이뇨? 진실하지 못할까 하나이다.”
노인이 말하였다.
“진실한 일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즐기는 잠이나 자라.”
이생이 깊이 의혹스러우나 여러 날 고생하여 몸이 고단하고 잠이 더욱 왔다. 누웠는데 동방이 밝는 줄도 깨닫지 못하였다. 문득 몸이 서늘하므로 일어나 보니, 웅장한 누각과 노인은 없고 은자와 글을 쓴 종이 한 장, 그리고 노란 주머니 한 개, 차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바야흐로 신선이 한 일인 줄 알았다.
이생이 놀랍고 두려워 글을 쓴 종이를 펴 보니
‘내가 세상을 뜨니 네 몸이 늘 괴롭도다. 표연히 길을 떠나, 단지 하나 부인이 준 돈뿐인데 이를 적선하여 남을 도와주었도다. 수삼 일 길을 가되 조금도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그 도량이 넓고 덕이 크도다. 황천이 감동하여 복을 내리오 사 나로 하여금 너의 피곤한 것을 구하고 비서(祕書)를 주 나니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라.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이생이 보기를 다한데 끝에 또 썼으되,
‘장인 양자윤은 사랑하는 사위 이경작에게 부치노라.’라고 하였다.
이생이 가슴에 사무쳐 눈물 두어 줄을 흘리고 주머니 속의 글을 수습하고 또 차를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였다. 몸을 일으켜 장인의 전후 은혜를 생각하니 아름다움이 넓고 밝으므로 굳고 단단한 마음이 생겨 저절로 눈물이 마구 흘렀다.
(중략)
양 소저는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니 반갑고 슬픔이 뒤엎히어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 재배하고 말하였다.
“제가 능력도 없고, 재주가 없어 이름 있는 집안을 우러러 사모한 지 십 년이라. ㉢ 덕이 적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사리에 어두워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하와 한 번 이렇듯 끝이 없는 죄를 지웁고 지아비 집을 나간 지 육 년에 이르러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은 정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시부모님의 산소 아래에 이르러서는 얼굴을 뵈옵지 못하온 한이 있어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시부모께서 들으셨으니 죄가 만 번 죽어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이 공이 근심하여 말하였다.

“우리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작위를 받아 이렇게 화려하게 안거하니 사람이 사납지 아닐지언정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리오.”

부인이 소저의 고운 손을 잡고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현부는 슬퍼하는 것을 그치어라.”

라고 하므로 소저가 다시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이 씨 가문에 의탁하온 지 십여 년에 일찍 얼굴을 뵈옵지 못하였더니 금일 얼굴을 뵈어 가르침을 듣고,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옵나니 저의 녀를 인도하여 슬하에서 뵈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공이 말하였다.

㉔ “오래 살고 일찍 죽을 때가 있나니 현부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비록 한때 곤궁하나 장래에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 어찌 우리의 자취를 밝아 따르리오?”

부인이 슬퍼하면서 말하였다.

“가련하다, 나의 현부여. 자취가 이렇듯 슬프노.”

이 공이 부인의 시녀를 명하여 말하였다.

“현부가 온 지 오래니 차를 마시도록 하라.”

시녀가 명령을 받아 차를 드리니 양 씨가 받아 마시고는 혼 혼한 정신이 상쾌해졌다. 이 공이 명하여 말하기를,

“현부는 온 지 오래되었으니 빨리 돌아갈지어다.”

소저가 일어나 하직할 때 슬픔을 멈추지 않으므로 공이 재삼 위로하고 사랑하여 그 손을 잡고 어서 가기를 허락하였는데, 궁전에서 내려려 하되 대궐 안의 섬돌이 매우 높은지라 무엇에 걸려 깨어나니 베갯머리를 스치고 간 하나의 꿈이었다. 소저가 황홀함을 이기지 못하여 베개를 밀치고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시부모의 깨끗한 기상이 거목과 같았으므로 다시 어찌 미치리오. 가을바람이 소슬하고 기러기 슬프게 우니 속절없이 단장하여 매우 구슬프고 애달플 뿐이었다.

— 작자 미상, 「낙성비룡」 —

2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공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양 소저를 위로하였다.
- ② 노인은 이생이 가진 돈을 모두 적선한 것을 알고 있었다.
- ③ 양 소저는 이 공 부부를 모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했다.
- ④ 이생은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어 노인에게 비서를 받을 수 있었다.
- ⑤ 이 공은 살아 있을 때와 달리 죽어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26.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㉒에서는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㉑에서는 상대보다 우월한 신분을 통해, ㉔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③ ㉒과 ㉔에서는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㉒과 ㉔에서는 모두 상대의 안위를 걱정하며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 ⑤ ㉔에서는 과거의 일을 근거로 자책하고 있고, ㉔에서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며 상대를 만류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낙성비룡」에는 시련을 겪던 남녀 주인공인 이생과 양 소저가 각각 안내자를 만나 정보를 획득하는 장면이 있다. 각각의 장면에서 안내자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주인공은 안내자와의 만남을 통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때 주인공과 안내자와의 관계는 주인공이 안내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가 된다.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안내자	메시지	청자
노인	○ 인물에 대한 정보 ○ 시련과 관련된 정보	이생
이 공 부부		양 소저

- ① 노인이 이생의 잠이 많다는 점과 식사량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안내자가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② 이생과 노인의 관계, 양 소저와 이 공 부부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점은 남녀 주인공이 안내자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에 해당하겠군.
- ③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 고생을 한 것과 양 소저가 남편의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지낸 것은 안내자를 만나기 전 남녀 주인공이 겪은 시련이라 볼 수 있겠군.
- ④ 양 소저가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이 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장면은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해당하겠군.
- ⑤ 노인이 이생에게 평안히 지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는 것은 안내자가 주인공에게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동 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그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한다.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나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 ㉠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 재판에 의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 소송으로,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다.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하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세 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대금 분할을 한다.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 분할 후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와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 배상이 허용된다. 가격 배상은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은 세 가지 방법 중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공유 관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공유 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한다는 의의가 있다.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유물 분할의 장단점을 제시한 후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② 공유물 분할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할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 ③ 공유물 분할 방법의 한계를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공유물 분할 방법을 구분한 후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공유물 분할의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한 후 각 단계에서의 유의점을 밝히고 있다.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자는 보유한 공유물의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 ② 공유자 전원이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
- ③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공유 관계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유자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 관계로 남을 수 있다.
- ⑤ 공유자 중 특정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배상해야 한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모든 이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 ② ㉠은 ㉡과 달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공유자에게 있다.
- ③ ㉠은 ㉡과 달리 공유물을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공유물 분할을 희망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을 전제로 한다.
- ⑤ ㉡은 ㉠과 달리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토지 중 일부가 고압선 아래에 위치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를 분할받는 자의 경우 분할 이전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 분할을 요청하였으며, 을과 병은 현물 분할을 희망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고려하여 분할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아 현물 분할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 ① 갑은 분할받을 현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손해 볼 것을 염려하여 경매를 통한 분할을 원하는 것이군.
- ② 을과 병이 희망하는 분할 방법은 재판에 의한 분할 시 원칙이 되는 분할 방법이군.
- ③ 법원은 분할 청구자인 갑이 요청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이겠군.
- ④ 법원은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겠군.
- ⑤ 법원은 공유자들의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공유 관계의 원만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아 현물 분할을 명한 것이겠군.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하며, 이 장치는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가상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 가상 물체를 만지면 가상 환경 시스템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는 이 포스 피드백에 의해 가상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진동 촉감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으로, 압전 소자를 활용한 압전 구동 장치를 통해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압전 소자의 내부에는 한쪽에 양전기를, 반대쪽에 음전기를 ㉠ 따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압전 소자에서 양전기를 따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고 음전기를 따는 쪽에 양극을 연결한 후 전압을 가하면, 쌍극자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각각 ㉡ 끌려가 전체적으로 압전 소자가 늘어나는 인장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연결하면, 쌍극자들은 연결된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멀어지기 때문에 압전 소자가 줄어드는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압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되면 진동이 발생하고, 압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따라서 전압의 조절만으로 압전 소자의 진동수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300 Hz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햅틱 장치로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전달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은 ‘스퀴즈 필름’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하여 마찰력이 작아진다. 이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스퀴즈 필름’, 스퀴즈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을 ‘스퀴즈 힘’이라고 한다.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 라고 할 때, 스퀴즈 필름은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mu\text{m}$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 보다 클 때 형성된다. 또한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 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퀴즈 힘이 커지는데, 스퀴즈 힘이 클수록 마찰 계수는 작아진다. 인간은 마찰 계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에는 거친 촉감을, 작은 물체를 만질 때에는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어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나)

‘햅틱’이라는 단어는 ‘촉각의’, ‘만지는’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고 한다. 햅틱스에서는 현실과 ㉣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가 촉감을 담당하는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되어 인간은 외부 자극을 자각하게 된다. 이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커지며,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기계 수용체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로,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할 때 나타나는 수용체의 반응인 감각 순응의 속도에 따라 빠른 순응 수용체와 느린 순응 수용체로 분류할 수 있다. 빠른 순응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 사라지는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자극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느린 순응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또한 기계 수용체는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 그 지름이 2~8 mm인 타입 I 수용체와 지름이 10~1,000 mm인 타입 II 수용체로 나눌 수 있다. 감각 수용장이란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수용체의 지름이 클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지각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타입 I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I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고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 피부 전체에서 타입 I 수용체는 타입 II 수용체보다 그 수가 많다.

한편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지만,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 물체의 형태에 따라 거칠기가 달라지고 이는 손에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켜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느린 순응 타입 I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

또한 기계 수용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이 ㉥ 다른데, 느린 순응 타입 I 수용체는 1 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빠른 순응 타입 I 수용체와 빠른 순응 타입 II 수용체는 각각 30~40 Hz와 200~300 Hz 영역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빠른 순응 타입 II 수용체는 기계 수용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아 해당 영역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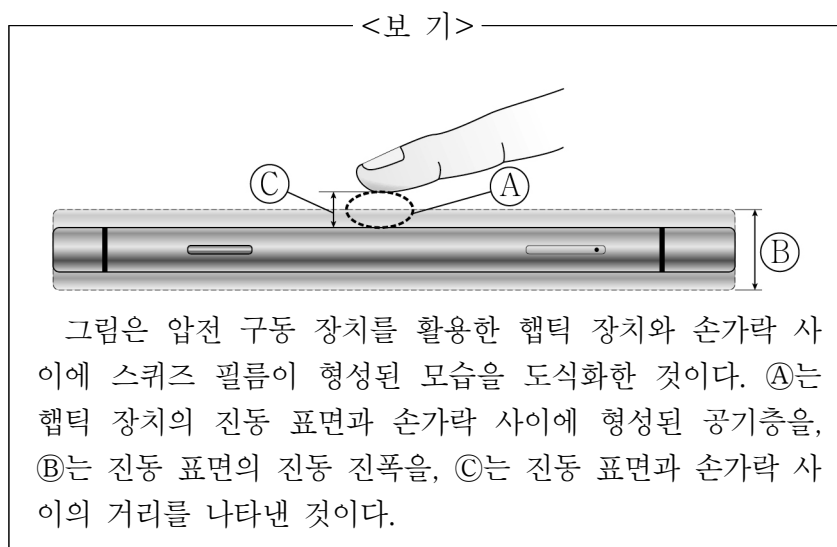
32.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서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상 환경 사용자는 왜 200~300 Hz의 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까?
- ② 햅틱 장치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 피드백을 대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사용자가 포스 피드백에 의해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 ④ 촉각을 통해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가상 환경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를 인지할 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3. (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I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
- ②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활성화되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어진다.
- ③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잡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다.
- ④ 압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은 압전 소자 내부의 쌍극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 ⑤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이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가해지면 느린 순응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34.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는 주변의 공기보다 압력이 높아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감소한다.
- ③ ㉡를 1mm 이상 유지한 상태와 0인 상태가 반복되는 진동 표면을 만지게 되면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게 된다.
- ④ ㉢가 일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커지면 스퀴즈 힘이 커져서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감소한다.
- ⑤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를 ㉢로 나눈 값이 커져서 원래보다 거친 느낌을 줄 수 있다.

35.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서 스퀴즈 힘의 크기가 증가하여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 ② 포스 피드백의 발생 유무에 따라 스퀴즈 힘의 크기가 달라져 햅틱 장치에서 스퀴즈 필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 ③ 진동 진폭의 변화가 스퀴즈 필름 발생 유무나 스퀴즈 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어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 ④ 진동 진폭이 증가하여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 스퀴즈 힘의 크기가 감소하여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 ⑤ 진동이 발생하여 스퀴즈 힘의 크기가 0이 되면 스퀴즈 필름이 형성되지 않아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36.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ㄱ~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실험 결과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자신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을 착용할 때나 자신이 착용한 안경을 벗을 때였다.
 - ㄴ. 손가락 몇 개를 피실험자의 아랫입술과 등 부위에 접촉하면서 몇 개가 접촉되었는지 맞게 하였더니, 아랫입술에 접촉한 손가락 개수만 정확하게 맞았었고, 등 부위는 손가락이 닿은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 ㄷ. 100명의 피실험자에게 1 Hz, 10 Hz, 40 Hz, 100 Hz, 300 Hz, 500 Hz로 진동하는 물체를 문질러 보게 하였더니 거의 모든 사용자는 1 Hz, 10 Hz의 진동은 부드러운 촉감으로, 40 Hz, 100 Hz의 진동은 약간 거친 촉감으로, 300 Hz, 500 Hz 진동은 다소 거친 촉감으로 분류하였으며, 모든 피실험자는 10 Hz, 100 Hz, 500 Hz 진동의 거칠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

- ① ㄱ: 빠른 순응 수용체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벗을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했음을 보여 준다.
- ② ㄴ: 아랫입술에 분포한 타입 I 수용체의 수가 등 부위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ㄴ: 체감각 피질에서 아랫입술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가 등 부위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④ ㄷ: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의 구별은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⑤ ㄷ: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이외의 진동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조성(造成)하는
- ② ㉡: 유발(誘發)되어
- ③ ㉢: 유사(類似)한
- ④ ㉠: 변형(變形)되는
- ⑤ ㉢: 차별(差別)되는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와 저 낭자야 내 말씀 들어보소 _____ [A]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 잊을쏘나 _____
 낙포선녀* 보랴 하면 전생에 네 아닌가
 남관* 포의(布衣) 백면서생도 신선(神仙)인 줄 뉘 알리오
 요지의 잔치에서 **복숭아**를 훔친 사람 너이건만
주고받은 같은 죄라 너와 내가 **귀양** 왔네
 넓고 아득한 천하에 동서로 나누이니 _____ [B]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은하수가 되어 있다 _____
 너도 나를 보랴 하면 여덟 고개 첩첩(疊疊)하고
 나도 너를 보랴 하면 한라산이 아득하다
 평생에 한이 되고 자나깨나 원하더니
 옥황상제 감동한지 선관(仙官)이 두둔한지
 태을선(太乙仙)의 연잎 배에 돛을 높이 달아
 자라 수염에 배를 매고 **제주 땅**에 들어오니
 아름다운 꽃과 나무 선계의 경치로다
 풍경도 좋거니와 좋은 인연 더욱 좋다
 연꽃 얼굴 버들눈썹 **전생 모습 그대로**요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다

(중략)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이요 사랑도 덧없도다
 성안 한 걸음 밖에 ㉠ **삼천리 약수(弱水)** 망망하네
 고운 눈썹 가는 허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금 비녀에 옥가락지 끼고 어디에서 노니는고
 청조(靑鳥)는 오지 않고 두견이 슬피 울 제
 여관 불빛 적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이 불을 누가 끄리오 임 아니면 할 수 없네 _____ [C]
 이 병을 누가 고치리오 임이 바로 편작이라 _____
 맺힌 마음 외사랑이 나는 점점 깊어지건마는
 무심한 이 임은 허랑하고 박정하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 _____ [D]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가서 _____
 꽃 같은 얼굴을 반갑게 만나보고
 온갖 수심을 날날이 풀려고 하였더니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니 _____ [E]
 어스레한 새벽 달빛에 작은 별뿐이로다 _____
 어와 내 일이야 진실로 우습도다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리라
 황옥경에 올라가서 **상제**께 아뢰올 때
 이 말씀 다 아뢰면 네 **죄**가 무거우리라
 다시금 생각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삼생(三生)의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 민우룡, 「금루사」 —

* 낙포선녀: 낙수의 여신으로 복희씨의 딸이라 함.

* 남관: 마천령의 남쪽 지방. 함경남도 일대.

(나)

내 외손녀 이 씨를 애도하니 아깝고도 슬프고 또 그리워할 만하다. 빼어난 슬기와 고운 성품으로 안과 밖이 해맑았다. 어찌 옥처럼 빛나는 규방에서 임하(林下)의 풍기*를 아우른 사람이 아니겠는가? 비록 아직은 여계(女誡)*를 읽고 글 속의 내용을

본뜨지는 못했지만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유순한 근본만큼은 은연중에 부합하였다. 홀로 한글로 된 책 속에서 충신과 열사 중에 절개와 행실이 본받을 만한 이를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 말채찍이라도 잡으려 했고*, 향초(香草)나 진주는 티끌처럼 여겼다. 의젓하고 노숙한 뜻과 태도가 있어 선대 조정에서 탕약을 올릴 적에는 어른보다 근심이 심해 하루에도 어떠한지를 세 차례씩 물었고 돌아가신 뒤에는 여러 날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천고의 칠실녀(漆室女)*를 다시 보는 듯하였다.

아! 이처럼 신명(神明)한 뜻과 행함을 보이고 이처럼 정숙하고 밝은 성품과 행실을 지니고도 규방 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마침내 한 조각 무명천에 거두어지고 흰 배에 실려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 황량한 언덕 아래 묻혀 마침내 가리어져 없어지리니,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오히려 평범한 사람과 함께 썩는 것이 달갑지 않아 빛나고도 환하게 우주의 사이에 정신을 남겨 두리라.

평생 너를 아꼈던 일흔 살 먹은 늙은이는 병으로 죽을 날이 가까운지라 온갖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겨우 몇 줄의 짧은 글을 무덤 앞에 보내 넣게 하니 너의 녀이 이를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 지난해 여름 내가 화음동에서 나와 **중남산의 정자**에서 만났었지. 노인이라 몹시 지친 나는 큰 평상의 시원한 대자리 위에 몸을 누였고 그때 너는 내 곁에서 등불을 밝혀 **옛글**을 쉬지 않고 읽었다. 매번 기이한 이야기로 무릎을 칠 만한 곳에 이르면 문득 일어나 찬 오이를 먹고 녹즙을 마시며 답답함을 풀어내곤 했지. 이때 인경 소리도 그치고 인적도 드물어 숲과 동산이 맑고도 울창해졌고, 주름 위로 떨어지는 소낙비나 평상 머리에 내리는 조용한 비로 쇠락했던 뜻이 다시 힘을 얻곤 했었지.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이승과 저승이 경계가 됨이 아니라 신선과 보통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었구나.

내가 일찍이 너를 데리고 **화음동 골짜기**로 들어가 바위와 샘물로 너를 즐겁게 하고 시(詩)와 서(書)로 네 식견을 넓히려 했다. 너는 비녀나 귀고리에 악착을 부리는 미운 습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마음과 고아한 운치를 지녀서 그윽함과 담박함을 함께할 만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 그 **약속**을 했는데 끝내 함께 가 보지 못했구나. 이는 진실로 네가 깊이 한스러워한 것이니 내가 어찌 차마 이를 잊겠는가? 생각이 미치매 눈물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나 너와 나는 ㉡ **뉘여 이어진 양** 끝이니 녀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 김창흡, 「그리운 외손녀」 —

* 임하의 풍기: 고상하고 품위 있는 취미를 가진 여인.

* 여계: 반소가 지은 여자의 행실에 대해 논한 책.

* 말채찍이라도 잡으려 했고: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고.

* 칠실녀: 나랏일을 근심했던 칠실 땅의 여인. 어린 외손녀가 임금의 병환을 근심했던 것을 보고 떠올린 것.

3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 대상이 지닌 장점을 예찬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고사 속 인물을 언급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9.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을 잊지 못한 채 살아온 화자의 심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B]: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와 임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별의 한을 풀어 줄 사람이 임밖에 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④ [D]: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

40.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사람들이 ‘외손녀’에 대해 아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 ② ‘나’는 ‘외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썼다.
- ③ ‘나’는 ‘외손녀’가 밝은 성품과 슬기로우심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 ④ ‘외손녀’는 여인의 장신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 ⑤ ‘외손녀’는 책 속 인물들의 절개와 행실을 높이 평가했다.

4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임과 함께 지냈던 공간을, ㉡은 글쓴이가 외손녀와 함께 지냈던 시간을 의미한다.
- ② ㉠은 화자와 임의 만남이, ㉡은 글쓴이와 외손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준다.
- ③ ㉠은 화자가 만족하며 살았던, ㉡은 글쓴이가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던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④ ㉠은 화자가 임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은 글쓴이가 슬픔을 잊기 위해 끊어 내야 할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해질 수 없는, ㉡은 글쓴이의 마음이 외손녀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유이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만남과 이별은 문학 작품의 오랜 소재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가)는 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적강 화소를 차용하여 화자와 임의 운명적인 사랑과 이별을, (나)는 글쓴이와 외손녀 사이의 일화를 통해 사별한 외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와 임이 선계에서 흠친 ‘복숭아’를 ‘주고받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는 것을 통해 적강 화소를 차용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제주 땅’에서 ‘전생 모습 그대로’인 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천상에서 맺은 임과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에서 화자가 천상으로 돌아가 ‘상제’에게 자신의 정을 저버린 임의 ‘죄’를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임과의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 글쓴이와 ‘종남산의 정자’에서 만난 외손녀가 글쓴이의 곁에서 ‘옛글’을 읽었던 일화를 통해 외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추억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글쓴이가 ‘화음동 골짜기’에서 함께 하기로 했던 외손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하는 모습을 통해 외손녀와의 사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 설마? 하고 물어보면 불쑥 주머니 속의 바다를 꺼내 보여 준다
 놀라지 마라, 그것은 마을의 아주 어린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제법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에는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은 한 수 위다
 흰 손수건인가 싶어 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 떼로 변하고
 손금 위로 바다를 흐르게 하고 흐르는 바다 위에 섬을 띄운다
 아주 오래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까지 전해 준다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 선물로 건네주던 바다
 읽다 만 시집 속에 ㉡ 곁에 접어 온 바다
 삶에 지칠 때, 누군가가 아득히 그리울 때
 나는 손바닥에 그 바다를 올려놓고 엽서를 쓴다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눈뜨는 바다
 저녁이면 사람과 함께 잠드는 바다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나는 알고 있으니
 - 정일근, 「주머니 속의 바다」 -

(나)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속리산은 순하디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
 ㉢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 있는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속리산은
 ㉤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
 - 나희덕, 「속리산에서」 -

43.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가)는 수미상관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나)는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바다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을 활용하여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을 활용하여 화자가 여전히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을 활용하여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 아래서의 삶이 더 힘겨운 것이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을 활용하여 산에서 깨달은 삶의 목표를 화자가 쉽게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은 대상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을 형상화한다. (가)는 바다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며 바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산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며 산을 오르는 것과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는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바다의 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흰색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다를 ‘손수건’과 ‘갈치 떼’에 비유하여 바다를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는 바다를 ‘사람과 함께 눈뜨’고 ‘잠드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바다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속리산이 ‘나’에게 ‘길을 열어 보’인다고 표현하여 속리산을 동반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주체로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속리산을 ‘어깨를 낮추며’ ‘속삭’이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속리산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